

# 나주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당부...내달 4일 접수 마감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 접수가 오는 8월 4일까지 마감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소유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법은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지역은 농지, 임야 및 묘지를 대상으로 한정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적용한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법무사 1인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

를 첨부해 소유권 이전등기 확인서 발급신청을 8월 4일까지 시민봉사과 또는 건축허가과에 접수해야 한다.

신청 이후 사실관계 등을 현지조사 후 2개월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공고 사실을 통지한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인은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년 2월 6일까지 나주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시는 지금까지 총 1천447건, 2천

104필지 중 828건, 1천154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김인자 나주시 시민봉사과장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추후 재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특별조치법 대상 시민들은 8월 4일까지 조속히 신청해달라”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현지조사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기자

## 장성군 “1천만 관광 시대 향해 달린다”

‘코로나 일상회복’ 이후 처음 맞이한 휴가철, 축령산 편백숲과 백양사 등 장성군이 보유한 관광지들이 다시 조망받고 있다.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이 많은 이들의 발길을 끌어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축령산 편백숲은 조림왕 임종국 선생(1915~1987)이 만든 국내 최대 규모 인공조림지다. 편백나무, 삼나무 등 상록수들로 조성된 1150헥타르(ha) 규모의 방대한 숲이 장관을 이룬다. 산림청이 지정한 ‘22세기를 위해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숲’에 이름이 올라 있으며, 7월에는 숲강스(숲+바강스)를 주제로 한 전라남도 추천 관광지에 선정됐다.

천년고찰 백양사는 대외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관광지다. 백암산을 비롯해 고불대, 쌍계루, 애기단풍 등 눈길 닿는 곳마다 그림같은 풍광이 이어진다. 특히, 사찰에 머물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백양사 템플스테이’와 정관스님의 ‘사찰음식 체험’이 인기다. 최근에는

(재)전라남도관광재단이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했다.

북하면 입암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남창계곡은 가족 단위 여행지로 제격이다. 여섯 개의 골짜기 사이로 시원하게 쏟아지는 계곡물을 지닌 ‘천연 워터파크’다. ‘장성8경’에 꼽힐 정도로 절경을 자랑한다.

주말마다 1만 명이 꾸준히 찾는 장성호 수변길도 피서지로 유명하다. 두 개의 출렁다리가 설치돼 있는 ‘출렁길’과 명품 트레킹 코스 ‘숲속길’로 나뉜다. 풍성한 계절꽃이 피어나는 황룡강은 울가물에도 축제를 개최해 ‘10억 송이 꽃강의 기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필암서원도 빼놓을 수 없는 관광코스다. 성리학자인 허서 김인후 선생이 배향(配享)된 장성 필암서원은 조선시대의 사회·경제상과 학자들의 생활사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다. 지난 2019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유광중 기자

## 영광,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영광군(군수 강중만)은 우산공원에 있는 어린이 물놀이장과 물무산 행복숲 유아숲 체험원에 있는 물놀이장, 향교 위 물놀이장을 오는 9일부터 개장한다고 밝혔다.

8월 14일까지 운영하는 어린이 물놀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개방하며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휴장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신변증 지참 영광군민만 입장이 가능하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과 ‘생활방역 세부수칙’에 따라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으면 입장이 제한된다.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13세까지이며 만 5세 이하는 보호자를 동반 이용해야 한다.

우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은 영광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사전 예약 70%와 현장 선착순 입장 30%로 입장 가능하며, 유아숲 체험원 물놀이장과 향교 위 물놀이장은 사전 예약 없이 현장 입장 가능하다.

입장인원은 우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은 오전, 오후 각 200명씩 하루 400명이며, 물무산 행복숲 어린이 물놀이장과 향교 위 물놀이장은 오전, 오후 각 100명씩 200명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신중을 기해 보다 더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기



구복규 화순군수가 취임 후 민선 8기 첫 정례회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PT)을 하며 민선 8기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공직자와 군민의 협조, 협력을 당부했다. /화순군 제공

## 구복규 화순군수 민선8기 군정운영방향 제시

구복규 화순군수가 취임 후 민선 8기 첫 정례회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PT)을 하며 민선 8기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공직자와 군민의 협조, 협력을 당부했다.

정례회에서 군수가 PT를 통해 공직자와 군민에게 군정 목표, 군정 방침, 실행 과제 등을 직접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정례회에는 공직자, 읍·면 이상

단 등 주민과 지역 기자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읍·면 전 직원과 이장들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영상으로 정례회를 지켜봤다.

이날 구복규 군수는 군정 목표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머물고 싶은 문화도시’ 등 5대 군정 방침, 8대 추진 전략, 70개의 실천과제, 인사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8대 추진전략으로는 공정과 혁신

을 통한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구축, 군민이 주인 되는 맞춤형 신뢰 행정 구현,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남도관광 1번지 실현, 고소득 창출로 농민이 잘사는 화순,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도시 조성, 신성장 미래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화순 실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SOC 확충이다.

/남호경 기자

## 담양, 청년 문화복지카드 주소요건 완화

2020년 7월 1일 이전부터 전남 거주 21~28세

담양군이 관내의 더 많은 청년에게 문화복지카드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의 주소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7월 1일 이전부터 전남에 주소록을 두고 거주한 21세부터 28세(1994년~2001년 출생자) 청년이며 연령과 주소 기준 충족 시 매년 지급된다.

다만,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대상자,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대상자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며,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자는 문화누리비 10만 원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청년 문화복지카드는 도내의 문화

활동, 자기계발, 관광을 위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며 균형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카드 사용 안내와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31일까지 농협카드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진행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2020년 1월 2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전남으로 전입해 지원받지 못한 청년들은 이번 추가모집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균형 투자유치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장진성 기자